

곳 이어가 고무製法發明

—發明債務로 矯導所까지—

고무의 製法은 美國의 곳이
어가 1839년에 發明했다.

원래 그는 發明狂으로서 世
人이야 무어라고 하건 또한 企
業的 成果는 不計하고 버튼에
서부터 스펀등 無數한 發明을
하였으나 어느 하나도 經濟的
도움은 되지않아 한때는 發明
債務때문에 矯導所身勢까지 졌
었다.

그러나 형무소에서 出獄하자
또 發明을 계속하여 이번에서
寒暑에 이겨내는 고무의 製法
에 골몰하였다. 그러던 어느날
煖爐위에서 고무내음과 동시에
그 고무가 지글지글 녹는 것을
發見하고 그 고무를 들어본즉
난로에 녹아붙지 않았다는 것
이다.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
硫黃의 湯이라고 斷定하고 즉
시 고무에 유황을 섞는 方法에
성공하여 1839년에 비로서 고
무의 製法發明을 하기에 이르
렀다.

엔사이클로피디어의 發明

—紀元 79년에 가이부스가—

「봄베이 最後의 날」하면 가이
브스·푸리누스가 聯想되고 가
이브스하면 저 有名한 엔사이
클로피디어 37卷을 들 수 있다.
世界 最初의 大百科辭典이 로마
艦隊의 指揮官으로 하여금 37

권까지 만들게 하였다는 것 자
체가 奇緣이라고 할만하나 그
백과사전에는 名實대로 宇宙
에서부터 地理, 民族, 生理, 生
物, 藝術 등 그야말로 人類의
寶物임은 말할나위 없다.

그러한 大業을 벌인 가이브
스는 봄베이의 最後慘事를 自
己손으로 形容해 놓지는 못하
고 그 現場에서 口傳하다가 목
숨을 걸우었다. 그 實相인즉 가
이브스가 로마艦隊의 指揮官으



發明小史

로서 미세눔半島에 있을 때인
紀元 79年 8月24日の 일이다.
그날 나폴리에 사는 市民들은
갑자기 激震에 흔들렸다. 번개
가 기둥치듯 하며 轟音이 울리
는 쪽을 바라본즉 베스비어山
頂이 두조각으로 갈라지면서 巨
대한 불기둥이 치솟는가 했을
때 나폴리市內에 砂石이 쏟아
졌으며 砂塵으로 눈앞이 캄캄
했다. 이때 가이부스는 好奇心
으로 凝視하다가 그가 指揮하
던艦艇을 베스비어를 向해 槽
를 젓게 했다. 그러는 瞬間 봄
베이의 거리는 火山灰와 溶岩
속으로 사라진 것이다.

가이부스는 정신을 가다듬어
배를 카스테라마라에 接岸시키

고 진구의 집을 찾았으나 이미
그 집은 形跡도 없었다. 이때
가이부스는 흔들리는 地面과
솟아오르는 硫黃내음, 그리고
砂煙에 못이겨 쓰러지면서도
그 大慘事의 實況을 記錄하지
못함이 遺憾이라면서 그자리에
서 숨지고 만것이다. 가이브스
는 백과사전으로도 알려져있지
만 봄베이의 최후를 目擊하고
踏查한 人物인 것이다.

재봉틀特許는 에리어스가

—싱거는 月賦販賣로 히트—

재봉틀을 맨먼저 만든 사람은
프랑스의 치머니라고하는 사람
이며 이 재봉틀은 구두를 짓는
데 쓰여졌으나 衣類用裁縫機의
發明은 에리어스·하우가 먼저
發明하여 特許權까지 取得하였
다. 그러나 오늘까지도 의류용
재봉틀로 最上으로 君臨하고 있
는 싱거미신은 싱거가 創案製
作 發賣하여 마치 싱거미신이
始祖같이 되어 있으나 事實은
다르다.

그래서 재봉틀의 特許者인
에리어스·하우는 提訴에 이르
렀고 드디어는 每年 巨額의 特
許料를 싱거가 에리어스에게
支拂하기에 이르렀다.

여기에서 싱거는 궁리끝에
多量의 미신을 만들어 팔아서
收益을 올리는 方法으로 月賦
販賣를 考案하였고 싱거의 이
作戰이 크게 奏効하여 끝내는
大成함으로써 世界의 재봉틀王
이 되었다.